

##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

김준형<sup>1,3</sup> · 문준영<sup>2,3\*</sup> · 최은숙<sup>3</sup> · 우일웅<sup>3,4</sup> · 심경율<sup>3,5</sup>

<sup>1</sup>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성소방서, <sup>2</sup>조선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sup>3</sup>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4</sup>주한미군 의무사령부

<sup>5</sup>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 Public perception of ambulances

Jun-Hyeong Kim<sup>1,3</sup> · Jun-Young Mun<sup>2,3\*</sup> · Eun-Sook Cho<sup>3</sup>

Il-Woong Woo<sup>3,4</sup> · Kyong-Yul Sim<sup>3,5</sup>

<sup>1</sup>Anseong Fire Station, Gyeonggi-do Fire & Disaster Headquarters

<sup>2</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Center, Chosun University Hospital

<sup>3</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4</sup>United States Army Garrison Humphreys

<sup>5</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obtain, categorize, and analyze baseline data regard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mbulance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which can be utilized for improv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s.

**Methods:** Fifty people aged 20 to 40 years old were selected as P samples. Data from 35 statements of Q-cards and Q-sample distribution plots were gathered using Q-sort and analyzed using the PC-QUANL program for major factor analysis.

**Results:** We found four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ccounted for 57.57% of the total variation: "Considerate of emergency situations," "Identifying emergency patients," "Trusting emergency vehicles," and "Sympathizing with emergency patients."

Received February 28, 2021    Revised March 2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Correspondence to Jun-Young Mu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10-4157-0556    Fax: +82-41-850-0331    E-mail: icaso777@naver.com

**Conclusion:** Organizations that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using ambulances should plan and render patient care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public perception of ambulances.

**Keywords:** Ambulance image,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Subjectivit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구급차의 어원이 된 ‘ambulance’는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에서 사용된 ‘hospital ambulat’라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했는데, 야전 병원처럼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보는 이동 병원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뜻의 ‘hospital ambulat’에서 유래되었다. ‘ambulant’의 의미는 라틴어 ‘ambula; 걷다, 움직이다’에서 기원한 것이며, ‘hospital ambula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원’이라는 단어 ‘hospital’은 없어지고, 어형이 변화되면서 ‘ambulance’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유럽에서 ‘ambulance’는 ‘야전 병원·병원선·부상병 수송기’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만, 군대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임시 야전 구호, 민간에서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응급구호에 ‘봉사하는 기구’라고 정의되어 있다. 구급차의 기원은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터에서 부상 당한 병사를 이송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구급차 운영도 국군의 창설과 더불어 군에서 시작되어 민간에 확산된 점은 다른 나라의 구급차 발달과정과 비슷하다. 1980년에는 보건사회부의 원조로 ‘야간구급 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대기시켜 시민에게 봉사하였다. 이처럼 구급차는 군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병원의 치료 개념을 병원 전 단계까지 확장시켜 주었고, 응급 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1, 2].

일반인에게 ‘ambulance’ 즉, 구급차는 현대적 응급의료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는 단순한 이송 수단을 넘어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미지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우 주관적인 독특한 감정, 고유한 느낌으로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의미화되고, 연상을 통해 형성되고 각인된다[3, 4]. 즉, 특정 대상에 대해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된 신념, 가치, 생각, 인상 등이 통합되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4, 5]. 이미지는 사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단체 혹은 조직에도 적용되어 기업 또는 조직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는 기업이나 조직이 기대하는 높은 제품가격, 투자자의 유인 효과, 우수한 인재 지원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는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지는 기업이나 조직의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6, 7]. 지금까지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만 충족시키면 고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생산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가 구매의 주요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기업들은 재빠르게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초기에는 이미지 연구가 마케팅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

는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조직은 물론 학교, 종교 단체 심지어는 시민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7]. 구급차가 응급의료체계를 나타내는 핵심적 이미지이고 이미지가 직·간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각인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생각이려면, 일반인들의 구급차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다가와 있고,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지 관리가 조직의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면 대중에 대한 구급차의 이미지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이미지와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는 조사되고 연구가 되었지만, 구급차의 이미지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정보를 연구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는 구급차의 이미지를 Q-방법론을 통해 그 주관성을 파악하여 응급의료 수요자 측면에서 응급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생각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반인이 생각하는 구급차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조를 유형화한다.

둘째,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성을 연구한 것이므로 다른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유형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 인식 유형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인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구급차의 이미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은 남자 24명, 여자 26명, 연령은 20대 9명, 30대 25명, 40대 16명으로 일반인 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5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Q-모집단을 통한 Q-표본 선정, 2단계는 Q-표본 수에 맞춰서 Q-카드와 Q-표본 분포도 작성, 3단계는 P-표본을 선정, 4단계는 Q-분류,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 1단계: Q-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구급차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문헌 고찰과 개별적인 심층 면담으로 남자 4명, 여자 5명, 연령은 20대 3명, 30대 3명, 40대 3명으로 구성된 일반인 9명과 구급차를 자주 접하

거나 타본 적이 있는 5명에게 “구급차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구급차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상자에게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솔직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면담시간은 1인당 약 3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위하여 조용한 곳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추출된 문항 중에서 중복되거나 애매한 문항은 삭제하여, 총 121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은 Q-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임상 및 현장경력 5년 이상의 응급구조사 4인이 추출된 121개의 Q-모집단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항끼리 배열하여 범주화한 후 수정·보완하여 총 35개의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 2단계: Q-카드와 Q-표본 분포도 작성

도출된 35개의 진술문을 5×3cm 크기의 Q-카드로 작성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쉽도록 Q-표본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 3단계: P-표본의 선정

P-표본의 연구대상자는 성별은 남자 24명, 여자 26명, 연령은 20대 9명, 30대 25명, 40대 16명으로 일반인 총 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 4단계: Q-분류

Q-분류는 연구대상자에게 35개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읽어보게 한 후,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동의, 보통, 가장 부정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Q-분포도에 맞춰서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차례

로 골라 오른쪽에서부터 중앙으로 강제 분류를 하도록 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장 부정하는 것부터 차례로 골라 왼쪽에서부터 중앙으로 강제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양 극단에 놓인 가장 동의한 진술문(+4)과 가장 비동의한 진술문(-4)을 선택한 이유를 Q-표본 분포도에 기술하면서 설명하도록 하였다. Q-분류 이후에는 Q-분포도에 카드 번호를 적게 하였고 이 과정은 개인당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 5단계: 자료처리 분석방법

구급차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50명에게 수집이 완료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보통인 것(0)을 5점, 가장 긍정하는 경우(+4)를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여 코딩하였다(Table 2). 진술문 번호순으로 점수를 코딩하여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했으며, Q-요인 분석은 각 항목의 표준점수(Z-score)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한 4가지 유형 분류를 선택하여 그 의미 있는 특성을 찾아 4가지 유형의 속성을 명명하였다.

## 4. 자료수집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자료 수집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Table 1. Q-statement selected by sample

| Statement  |
|--|
| 1. There is a patient(s) who needs an emergency medical care in the ambulance.   |
| 2. Ambulances seem to travel fast, obeying traffic laws.   |
| 3. Ambulances are likely to be disinfected frequently due to potential infection issues.   |
| 4. People use an ambulance even if it is not an emergency issue.   |
| 5. I cannot trust ambulances because there is no way to know if there is a patient(s) loaded in the ambulance when they use lights and sirens. |
| 6. Non-emergency patient is on board if the ambulance is not using sirens.   |
| 7. Emergency patient is on board in an ambulance with lights and sirens on.  |
| 8. The siren of ambulances is noisy.   |
| 9.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 10. Ambulances use lights and sirens indiscriminately.   |
| 11.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 12. It is more important for an ambulance to get to the hospital safely than to go fast at all costs.  |
| 13.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 14. Ambulances are driven recklessly.  |
| 15. Ambulances should go fast even if it violates the traffic laws.  |
| 16. Most ambulances ignore the traffic laws.   |
| 17. Ambulances are prone to accidents.   |
| 18. I feel sorry for ambulances when I see them stuck in the traffic because other drivers do not yield.                                       |
| 19. An ambulance will come to me swiftly if I am in need of help.  |
| 20. It is difficult to drive an ambulance.   |
| 21. The color red comes first to my mind when I think of the color of an ambulance.  |
| 22. Ambulances varies in size depending on their use.  |
| 23. Inside the ambulance is not clean because it is exposed to many patients.  |
| 24. The ride in the back of the ambulance is uncomfortable.  |
| 25. Ambulances are built strong.   |
| 26. The scene to which an ambulance responds is likely to be at high risk of assault.  |
| 27. An ambulance at an accident scene is likely to have a high risk of a secondary accident.   |
| 28. I feel uneasy when I see an ambulance.   |
| 29. Ambulances are like a guardian angel saving patients' life.  |
| 30. Ambulances are dependable because they help us.  |
| 31. An ambulance is a thankful vehicle that help sick or injured people.   |
| 32. I would be treated appropriately in the back of the ambulance in case of an emergency.   |
| 33. EMTs have a hard time working in an ambulance.   |
| 34. Ambulances are like "bullet taxis".  |
| 35. I would feel relieved in an ambulan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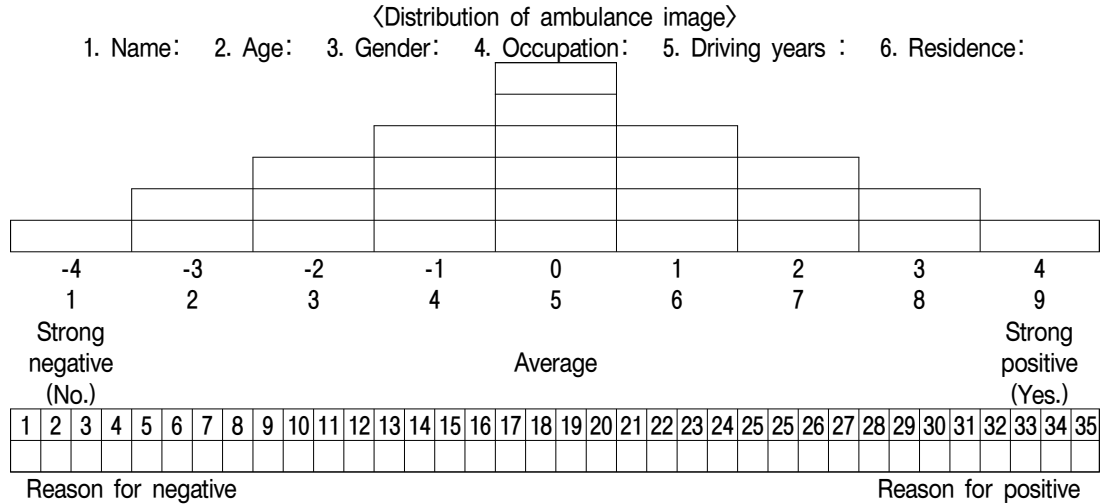


Fig. 1. Q-sample distribution plot and score configuration.

Table 2. Q-sort distribution

|                  |      |      |      |      |     |      |      |      |      |
|------------------|------|------|------|------|-----|------|------|------|------|
| Statement number | 2    | 3    | 4    | 5    | 7   | 5    | 4    | 3    | 2    |
| Score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Actual score)   | (-4) | (-3) | (-2) | (-1) | (0) | (+1) | (+2) | (+3) | (+4) |

### III. 연구결과

#### 1. 유형의 형성

##### 1) 유형별 고유값과 변량의 백분율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이었다.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7.57%를 설명하였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44.71%, 제2유형 6.46%, 제3유형 3.26%, 제4유형 3.14%

였다. 제1유형이 44.71%의 변량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 인식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이었다<Table 3>.

##### 2)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

전체 연구대상자 50명은 제1유형이 9명, 제2유형이 11명, 제3유형이 24명, 제4유형이 6명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는 <Table 4>와 같으며 유형마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유형을 가장 잘 대표하는 대상자이다.

Table 3. Type of Eigen value and variance

|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
| Eigen value            | 22.353 | 3.228  | 1.629  | 1.572  |
| Variations(%)          | 44.71  | 6.46   | 3.26   | 3.14   |
| Cumulative variance(%) | 44.71  | 51.16  | 54.42  | 57.57  |

Table 4. Factor weight for P-sample

(N=50)

| Type                                       | ID    | Factor weight |
|--|-------|---------------|
| Type I<br>(N=9)<br>Male=3<br>Female=6      | 33    | 1.339         |
|  | 49    | 1.291         |
|  | 7     | 0.881         |
|  | 36    | 0.747         |
|  | 40    | 0.712         |
|  | 27    | 0.686         |
|  | 34    | 0.591         |
|  | 8     | 0.420         |
|  | 11    | 0.161         |
| Type II<br>(N=11)<br>Male=5<br>Female=6    | 26    | 1.233         |
|  | 16    | 1.187         |
|  | 25    | 1.165         |
|  | 20    | 1.051         |
|  | 24    | 1.043         |
|  | 44    | 0.888         |
|  | 38    | 0.792         |
|  | 30    | 0.770         |
|  | 41    | 0.557         |
|  | 14    | 0.548         |
|  | 42    | 0.382         |
| Type III<br>(N=24)<br>Male=14<br>Female=10 | 29    | 2.127         |
|  | 3     | 1.681         |
|  | 37    | 1.168         |
|  | 17    | 1.407         |
|  | 39    | 1.261         |
|  | 50    | 1.171         |
|  | 9     | 1.148         |
|  | 19    | 1.082         |
|  | 6     | 1.071         |
|  | 48    | 1.025         |
|  | 23    | 1.005         |
|  | 4     | 0.941         |
|  | 31    | 0.928         |
|  | 28    | 0.860         |
|  | 46    | 0.829         |
|  | 47    | 0.828         |
|  | 32    | 0.825         |
|  | 43    | 0.788         |
| 35   | 0.786 |               |
| 5  | 0.723 |               |
| 13   | 0.723 |               |
| 15   | 0.709 |               |
| 12   | 0.633 |               |
| 22   | 0.431 |               |
| Type IV<br>(N=6)<br>Male=2<br>Female=4     | 45    | 1.513         |
|  | 10    | 0.957         |
|  | 21    | 0.853         |
|  | 2     | 0.693         |
|  | 18    | 0.607         |
|  | 1     | 0.534         |

## 2. 유형별 분석

### 1) 제1유형 : 응급상황 배려형

제1유형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9명으로 남자 3명, 여자 6명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제1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2.10$ ).”,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Z=2.02$ ).”,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Z=1.89$ ).”, “1. 구급차에는 응급 상황의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Z=1.23$ ).”, “6. 사이렌을 켜지 않은 구급차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타고 있을 것 같다( $Z=1.15$ ).”, “15. 구급차는 신호 및 차선을 위반하더라도 빨리 가야 할 것 같다( $Z=1.02$ ).”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1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21. 구급차의 색깔하면 빨간색이 먼저 떠오른다( $Z=-1.82$ ).”, “22. 구급차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할 것 같다( $Z=-1.72$ ).”, “11. 구급차의 경광등은 다른 운전

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다( $Z=-1.62$ ).”, “8.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다( $Z=-1.38$ ).”, “28. 구급차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 $Z=-1.19$ ).”, “10. 구급차는 사이렌 및 경광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Z=-1.09$ ).” 등의 순이었다<Table 5>.

이러한 제1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1유형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1.339를 보인 33번 대상자는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2.10$ ).”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구급차에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고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Z=1.89$ ).”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차로 인해 응급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험해지니까”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229를 보인 49번 대상자는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Table 5. The statements above  $\pm 1$  of Z-score in factor I

| Item No. | Statements   | Z-score |
|----------|--|---------|
| 13       |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2.10    |
| 9        |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2.02    |
| 18       | I feel sorry for ambulances when I see them stuck in the traffic because other drivers do not yield. | 1.89    |
| 1        | There is a patient(s) who needs an emergency medical care in the ambulance.                          | 1.23    |
| 6        | Non-emergency patient is on board if the ambulance is not using sirens.                              | 1.15    |
| 15       | Ambulances should go fast even if it violates the traffic laws.                                      | 1.02    |
| 10       | Ambulances use lights and sirens indiscriminately.   | -1.09   |
| 28       | I feel uneasy when I see an ambulance.   | -1.19   |
| 8        | The siren of ambulances is noisy.  | -1.38   |
| 11       |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1.62   |
| 22       | Ambulances varies in size depending on their use.  | -1.72   |
| 21       | The color red comes first to my mind when I think of the color of an ambulance.                      | -1.82   |



같다( $Z=2.02$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응급상황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유형의 대상자들은 구급차에는 응급상황의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여 도로 위에 구급차를 보면 응급상황으로 판단,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제1유형을 ‘응급상황 배려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 응급환자 감별형**

제2유형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11명으로 남자 5명, 여자 6명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제2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

을 보면 안타깝다( $Z=2.35$ ).”,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95$ ).”, “4. 사람들이 구급차를 위급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 같다( $Z=1.47$ ).”, “27.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는 이차사고 위험이 높을 것 같다( $Z=1.34$ ).”,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Z=1.31$ ).”, “15. 구급차는 신호 및 차선을 위반하더라도 빨리 가야 할 것 같다( $Z=1.02$ ).”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2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8.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다( $Z=-1.94$ ).”, “25. 구급차는 튼튼할 것 같다( $Z=-1.55$ ).”, “11. 구급차의 경광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다( $Z=-1.49$ ).”, “10. 구급차는 사이렌 및 경광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Z=-1.46$ ).”, “34. 구급차는 총알택시 같다( $Z=-1.25$ ).”, “2. 구급차는 신호 및 차선을 잘 지키면서 빨리 가는 것 같다( $Z=-1.14$ ).” 등의 순이었다(Table 6).

Table 6. The statements above  $\pm 1$  of Z-score in factor II

| Item No. | Statements   | Z-score |
|----------|--|---------|
| 18       | I feel sorry for ambulances when I see them stuck in the traffic because other drivers do not yield. | 2.35    |
| 13       |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1.95    |
| 4        | People use an ambulance even if it is not an emergency issue.  | 1.47    |
| 27       | An ambulance at an accident scene is likely to have a high risk of a secondary accident.             | 1.34    |
| 9        |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1.31    |
| 15       | Ambulances should go fast even if it violates the traffic laws.                                      | 1.02    |
| 2        | Ambulances seem to travel fast, obeying traffic laws.  | -1.14   |
| 34       | Ambulances are like “bullet taxis”.  | -1.25   |
| 10       | Ambulances use lights and sirens indiscriminately.   | -1.46   |
| 11       |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1.49   |
| 25       | Ambulances are built strong.   | -1.55   |
| 8        | The siren of ambulances is noisy.  | -1.94   |

이러한 제2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2유형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1.2339를 보인 26번 대상자는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Z=2.35$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생각되어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차량들을 보면 화가 나고 안타깝다”라고 답하였고,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95$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구급차 안에 환자가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1655를 보인 25번 대상자는 “4. 사람들이 구급차를 위급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 같다( $Z=1.47$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119구급차를 단순 이송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0517를 보인 20번 대상자는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Z=2.35$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고 “4. 사람들이 구급차를 위급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 같다( $Z=1.47$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구급차를 공짜 택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도로 위에 구급차를 보면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급하지 않아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제2유형을 ‘응급환자 감별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제3유형 : 구급차 신뢰형

제3유형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24명으로 남자 14명, 여자 10명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제3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86$ ).”,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Z=1.55$ ).”,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Z=1.35$ ).”, “29.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호천사 같다( $Z=1.33$ ).”, “15. 구급차는 신호 및 차선을 위반하더라도 빨리 가야 할 것 같다( $Z=1.27$ ).”, “30. 구급차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 $Z=1.25$ ).”, “32. 구급차를 타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Z=1.22$ ).”, “7.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 구급차를 보면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Z=1.21$ ).”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3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11. 구급차의 경광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다( $Z=-1.68$ ).”, “8.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다( $Z=-1.52$ ).”, “10. 구급차는 사이렌 및 경광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Z=-1.41$ ).”, “23. 구급차 내부는 많은 환자들이 이용해서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Z=-1.32$ ).”, “34. 구급차는 총알택시 같다( $Z=-1.31$ ).”, “14. 구급차는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것 같다( $Z=-1.21$ ).”, “5. 구급차 안에 환자가 정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 $Z=-1.08$ ).” 등의 순이었다<Table 7>.

이러한 제3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3유형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2.1271를 보인 29번 대상자는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86$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구급차를 보면 당연히 비켜주어야 된다는 것이 준법정신을 가진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답하였고 “29.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호천사 같다( $Z=1.33$ ).”라는 진술문을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Table 7. The statements above  $\pm 1$  of Z-score in factor III

| Item No. | Statements  | Z-score |
|----------|---|---------|
| 13       |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1.86    |
| 9        |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1.55    |
| 18       | I feel sorry for ambulances when I see them stuck in the traffic because other drivers do not yield.  | 1.35    |
| 29       | Ambulances are like a guardian angel saving patients' life.   | 1.33    |
| 15       | Ambulances should go fast even if it violates the traffic laws.   | 1.27    |
| 30       | Ambulances are dependable because they help us.   | 1.25    |
| 32       | I would be treated appropriately in the back of the ambulance in case of an emergency.  | 1.22    |
| 7        | Emergency patient is on board in an ambulance with lights and sirens on.  | 1.21    |
| 5        | I cannot trust ambulances because there is no way to know if there is a patient(s) loaded in the ambulance when they use lights and sirens. | -1.08   |
| 14       | Ambulances are driven recklessly.   | -1.21   |
| 34       | Ambulances are like "bullet taxis".   | -1.31   |
| 23       | Inside the ambulance is not clean because it is exposed to many patients.   | -1.32   |
| 10       | Ambulances use lights and sirens indiscriminately.  | -1.41   |
| 8        | The siren of ambulances is noisy.   | -1.52   |
| 11       |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1.68   |

“실제 구급차를 이용해본 사람으로 위급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구급대원은 수호천사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6810를 보인 3번 대상자는 “32. 구급차를 타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Z=1.22).”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구급차의 구급대원이 전문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응급상황 일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4070를 보인 17번 대상자는 “30. 구급차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Z=1.25).”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구급차의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유형의 대상자들은 도로 위에

구급차를 보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호천사 같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우며, 구급차를 타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구급차 신뢰형’으로 명명하였다.

#### 4) 제4유형 : 응급상황 공감형

제4유형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6명으로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제4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Z=2.19).”, “31. 구급차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차라고 생각된다(Z=1.77).”, “18. 다른 차들이 양보하지 않아 구급차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 $Z=1.73$ ).”, “7.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 구급차를 보면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Z=1.49$ ).”,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45$ ).”, “28. 구급차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 $Z=1.03$ ).”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4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22. 구급차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할 것 같다( $Z=-1.62$ ).”, “11. 구급차의 경광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다( $Z=-1.44$ ).”, “24. 구급차는 승차감이 불편할 것 같다( $Z=-1.36$ ).”, “33. 구급차에서 일하면 고생할 것 같다( $Z=-1.31$ ).”, “34. 구급차는 총알택시 같다( $Z=-1.22$ ).”, “2. 구급차는 신호 및 차선을 잘 지키면서 빨리 가는 것 같다( $Z=-1.11$ ).” 등의 순이었다<Table 8>.

이러한 제4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4유형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1.513을 보인 45번 대상자는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Z=2.19$ ).”라

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귀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응급상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하였고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Z=1.45$ ).”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 보아서 알고 있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0.9574를 보인 10번 대상자는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Z=2.19$ ).”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상당히 급한 환자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 같다”라고 답하였고 “7.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 구급차를 보면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Z=1.49$ ).”라는 진술문을 긍정한 이유에 대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빨리 달리는 구급차를 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공감된다.”라고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4유형의 대상자들은 도로 위에

Table 8. The statements above  $\pm 1$  of Z-score in factor IV

| Item No. | Statements   | Z-score |
|----------|--|---------|
| 9        |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2.19    |
| 31       | An ambulance is a thankful vehicle that help sick or injured people.                                 | 1.77    |
| 18       | I feel sorry for ambulances when I see them stuck in the traffic because other drivers do not yield. | 1.73    |
| 7        | Emergency patient is on board in an ambulance with lights and sirens on.                             | 1.49    |
| 13       |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1.45    |
| 28       | I feel uneasy when I see an ambulance.   | 1.03    |
| 2        | Ambulances seem to travel fast, obeying traffic laws.  | -1.11   |
| 34       | Ambulances are like “bullet taxis”.  | -1.22   |
| 33       | EMTs have a hard time working in an ambulance.   | -1.31   |
| 24       | The ride in the back of the ambulance is uncomfortable.  | -1.36   |
| 11       |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1.44   |
| 22       | Ambulances varies in size depending on their use.  | -1.62   |

Table 9. The consensus items and average  $\pm$  1 of Z-score

| Item No. | Statements   | Z-score |
|----------|--|---------|
| 13       | When I se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 feel I should yield to it.  | 1.84    |
| 9        | It is an emergency if the ambulance runs with lights and sirens.     | 1.77    |
| 31       | An ambulance is a thankful vehicle that help sick or injured people. | 1.08    |
| 34       | Ambulances are like "bullet taxis".                                  | -1.08   |
| 11       | The lights of ambulances disrupt the sight of other drivers.         | -1.56   |

구급차를 보면 구급차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차라고 생각하며,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깝고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을 보면 응급환자가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지기에 ‘응급상황 공감형’으로 명명하였다.

**5)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 간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유형 간 일치점이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13.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Z=1.84).”, “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면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Z=1.77).”, “31. 구급차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차라고 생각된다(Z=1.0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유형 간 일치점이 높은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34. 구급차는 총알택시 같다(Z=-1.08).”, “11. 구급차의 경광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다(Z=-1.56).” 등의 순이었다 <Table 9>.

**IV.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인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응급상황 배려형’, ‘응급환자 감별형’, ‘구급차 신뢰형’, ‘응급상황 공감형’의 4가지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제1유형 ‘응급상황 배려형’의 응답자들은 구급차를 도로에서 보았을 때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개인의 사정보다도 먼저 응급한 환자를 우선해 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 배려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구급차의 이미지가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로 인식되어 도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소방차 길터주기나 구급차 양보와 관련된 홍보 활동으로 일반들의 의식 속에 구급차를 보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일반인들이 구급차를 도로 위에서 보았을 때 양보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높아진 것은 신속한 응급환자를 이송을 위해서 긍정적인 인식 이긴 분명하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고 주행을 할 때 구급차를 위해서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진다는 것 또한 간과해 선 안 될 문제점이다. 응급상황에서 구급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일반인들의 차량이 어떤 식으로 피양해야 안전할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결과를 대국

민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 요원에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구급차 운전 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2유형 ‘응급환자 감별형’의 응답자들은 제1유형에서와 같이 구급차를 도로에서 보면 위급상황으로 인식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응급환자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구급차를 위급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도로에서 구급차가 보이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하면서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중 응급하지 않는 경우를 감별해내려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응급환자 감별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위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들과 비응급환자이면서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그것을 감별해내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1유형에 이유처럼 최근 소방차 길터주기나 구급차 양보에 관한 홍보 활동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에 관한 기사를 보고 구급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비응급 시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구급출동 건수와 구급차를 통한 응급실 이송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률의 증가이고 이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인이라 생각된다.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도로 위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주행하는 구급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전부 다 응급환자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응급의료시스템에서 병

원 전 단계에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담하는 소방에서 더 이상의 양적인 구급출동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비응급환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투입대비 구급서비스의 고도화 전략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유형 ‘구급차량 신뢰형’의 응답자들은 구급차를 도로에서 보면 위급상황으로 인식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응답자들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급차량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 구급대원이 응급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구급차도 신뢰하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응급구조사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Lee와 Oh[12]의 연구에서 응급구조사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먼저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말한 ‘수호천사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구급차의 이미지가 구급대원의 이미지와 동일시되어 신뢰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동안의 구급서비스가 대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도 서비스이고 좋은 이미지는 조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이미지 관리의 조직의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반인들이 신뢰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구급대원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시켜야 한다.

제4유형 ‘응급상황 공감형’의 응답자들은 도로에서 구급차를 보았을 때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가 있을 것 같고 그 응급환자에게 공감하여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구급차를 처치를 받는 응급환자의 마음처럼 고마운 차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각종 매체에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많이 접하고 그러한 좋은 이미지가 쌓이게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응급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량과 구급대원에게 현장을 통제하는데 있어 오히려 독이 되는 이미지일 수 있다. 응급상황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신고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초반응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 1. 결론

본 연구결과 일반인의 구급차 이미지에 대한 4가지 인식유형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는 구급차에 대한 인식유형을 이해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유형에서는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 요원에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반인들 또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제2유형에서는 응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지금의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제공 서비스보다는 부분 유료화나 비응급환자 유료화 등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급차 서비스는 응급

환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제3유형에서는 일반인들이 구급차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우수하게 제공한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처치를 막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문제도 법률적으로 개선 시켜야 할 것이다. 제4유형에서는 응급상황 공감에서 나아가 최초반응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초반응자 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일반인들의 구급차에 대한 인식유형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2)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급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 범위 관한 법률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 3) 응급 상황 시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 요원 운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ORCID ID

Jun-Hyeong Kim : 논문 연구, 자료 수집, 작성  
0000-0002-4991-5258

Jun-Young Mun : 논문 연구, 자료 수집, 작성  
0000-0002-3075-7157

Eun-Sook Choi : 논문검토, 논문수정  
0000-0002-6074-3469

Il-Woong Woo : 논문 연구, 자료 수집, 작성  
0000-0002-0855-8418

Kyung-Yul Sim : 논문 연구, 자료 수집  
0000-0002-9323-9103

## References

1. Ko BJ. A Comparative Study on Ambulances in Korea and the U.S.A., U.S. EMT Course Training assignmen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8:253-55.
2. Park SH.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national ambulances vehicles types and study on of the internal design impro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14, Jeungpyeong-gun, Korea.
3. Kim ES. Study on the effect of image of cabin crews upon airlines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09, Jeonju, Korea.
4. Kwon MH, Kwon YE. A Q-methodology study on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SSSS 2014;29:29-48.
5.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11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2002. 1-801.
6. G. R. Dowling. Corporate reputation: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corporate brand. London: Kogan Page, 1994. 1077-93.
7. Jung SJ, Kim BC, Kim YM. Attitudes of police science students toward police image: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9):639-50. <https://doi.org/10.5392/JKCA.2014.14.09.639>
8. Lee GY, Choi ES. Leadership perception types among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19;23(1):71-85. <https://doi.org/10.14408/KJEMS.2019.23.1.071>
9. Lee GY, Choi ES. The perception types of clinical training experience in paramedic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7;21(1):59-73. <https://doi.org/10.14408/KJEMS.2017.21.1.059>
10. Baek ML. EMT student's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KSSSS 2011;23:115-30.
11. Lee IS, Oh JH. A study on the job image of EMTs. Journal of KSSSS 2008;16:149-60.
12. Lee IS, Oh JH. A study on the attitude of EMT students toward euthanasia. Journal of KSSSS 2008;17:117-33.
13. Kim JH, Lee JY, Kim DW, Hyun HJ, Byeon DH, Rho SG et al. Study on subjectivity of fire figh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0):4475-83. <https://doi.org/10.5762/KAIS.2011.12.10.4475>
14. Lee JY, Kim JH. Subjectivity study on broadcasting of civil defense exercise in nation : focused on fire-fighting offic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9; 9(12):216-26.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2.216>
15. Kim IJ, Sim HH. Subjectivity on the job image of male nurses. Journal of KSSSS 2016;32:69-87.
16. Kim YJ.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nursing student's image of professional nurse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5):224-3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5.224>
17. Shin DM, Yoon BG, Han YT. Analysis of ambulance traffic accident during driving. Fire Sci Eng 2016;30(1):130-7.



- <https://doi.org/10.7731/KIFSE.2016.30.1.130>
18. Kim TS. Analyzing user experience in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 through contextual approach. *JPR* 2015;33(1):31-40.  
<https://doi.org/10.36345/kacst.2015.33.1.004>
19. Han KI, Song MS, Park CS. A subjectivity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image of university student majoring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09;11(1):25-19.
20. Han KE, Cho KM, Park SH. Analysis of professional baseball fans' perception type about physical environment of professional baseball stadium: Q-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2019;58(5):81-95.  
<https://doi.org/10.23949/kjpe.2019.09.58.5.8>